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9/10 월호
2024년



관련기사: 차코문화국립역사공원 23페이지

Pajada Butte, Chaco Culture National Historical Park Photo by Kyong Hwa Lee

차례 (CONTENTS)

한인회소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태자 : 2	성경: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김민순 : 17
뉴멕시코 한국학교소식	이수신 : 3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운명	신경일 : 18
한국학교 특별활동 /		여행: Six Flags Over Texas	송은숙 : 19
나의 영웅 김구 선생님	이연우 : 4	영어이야기: (34) Music is the universal language	이상목 : 21
지역소식: 로스 루나스의 아마존 물류 센터	: 5	기행문: 차코문화국립역사공원	이경화 : 23
2024년 파리 올림픽 폐막	: 6	수필: 오수나 너서리	김준호 : 26
7-8월 주요 뉴스/나바호 지역 전기사업	: 7	수필: 8월의 크리스마스	차학주 : 27
프락시스 신약성경이 나오기까지 (2) 김기천	: 8	지역소식: 버나리오 카운티 속도단속 실시	: 29
간증문: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아버지 이귀옥	: 9	뉴멕시코한인교회안내	: 30
수필: 도로의 이름	이정길 : 10	뉴멕시코한인업소안내	: 31-32
칼럼: 나의 아버지	나정용 : 11	한인업소 광고	: 33
수필: 하나님을 만나는 황재가!	나정자 : 12	갈릴리 장로교회 찬양전도집회 광고	: 34
설교문 요약: 행복, 맛보셨나요?	김동수 : 14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태자



제20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주일을 지나고 밤사이 시원하게 쏟아진 비로 아침의 날씨마저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기 시작하려나 봅니다. 그리고 수확되는 과일의 풍성한 나눔이 마음마저 풍요로워지는 계절입니다.

한인회 소식을 전합니다.

8월 11일 광복절 행사는 60여 명의 한국학교 학생들, 참전용사들, 교민들이 모여 잘 치렀습니다. 행사 때마다 노구를 이끌고 참석해 주시는 6.25 참전 용사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광복절 동영상을 보시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독립 잇다 단체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용 동영상을 보내 주셔서 고화질 동영상으로 교민들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독립 정신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이념을 갖고 운영하는 독립잇다에 감사드립니다.

9월 7일에는 풀뿌리 운동으로 미주 한인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과 정신에 대하여 UC 대학 장태한 교수의 강연이 Zoom으로 있습니다. 회관에서 전자칠판으로 강연을 들을 것이며 강연 후 저녁 식사와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9월 중순에 저는 한국에 나가 9월 초에 있는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참석합니다. 뉴멕시코 한인회를 알리려 노력하겠습니다.

9월 14일에는 한미 장학재단 마운틴

챗터에서 장학금 시상식이 있습니다.

St. John's college의 홍유민과 UNM의 장현선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축하합니다.

10월 22일 순회영사 업무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서류를 검토해서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11월 8일에는 김치 축제가 있습니다.

2주간에 걸친 대장정으로 김치를 담을 것이며 한국을 알리고 김치를 홍보하는 이 행사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립니다.

8월에는 위점덕 이사께서 쌀과 물품을 후원해 주셨으며 정인자씨께서 마른묵나물을 여러 종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회는 임원들과 이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단합하여 한인회를 잘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민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인회장 윤태자 드림



2024년 하반기 순회영사 업무 안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영사 순회 업무를 위해 오는 10월에 뉴멕시코 한인회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소: 뉴멕시코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순회영사 방문 전 준비서류 및

민원관련 문의:

순회영사 방문 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 종류별로 준비 서류 및 정확한 민원수수료(반드시 현금이나 Money Order로 준비)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상기 홈페이지 안내사항에도 불구하고 세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대표전화 (213) 385-9300, 내선 221-222 또는 당관 민원실 전용 이메일 (consul-la@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전 세계의 스포츠인들이 자웅을 겨루는 지구인의 축제인 파리 올림픽이 무더위와 함께 막을 내리고 각 학교의 개강일에 즈음하여 밤 기온이 초가를 날씨처럼 제법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7월 25일과 26일에 LA 한국교육원의 후원으로 실시된 “찾아가는 교사연수”에는 25명의 교사, 학부모, 한인회 임원 및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육원 원장 강 전훈 님은 정규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반 개설을 원할 경우 지원방법 등에 관해 설명해 주셨고 초빙강사인 허 윤정 선생님은 LA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반을 지도하고 계시면서 쌓은 풍부한 한글 학습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수업을 이끄는 지도”라는 강의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원만한 수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수업 계획표 작성요령,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생들의 흥미유발,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한글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정보와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선생님들에게 효과적으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3일에는 미주 한국학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제 25차 한국어 교사학술대회가 열렸고 대회 시작전에 종이접기 재단에서 주최한 종이접기 대회 입상자 및 백범 김구 재단에서 주관한 백범 김구 독후감 쓰기 입상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종이접기 대회부문에서 김 강희 선생님의 지도로 진 수빈, 박 주은, 이 선우, 이 연우 학생들이 “사파리”라는 제목으로 출품한 작품이

고급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백범 김구 독후감 쓰기에는 김 강희 선생님의 지도하에 이 연우 군의 독후감이 백범 통일상에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를 대표해서 지도교사인 김 강희 선생님이 시상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8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아동 반 가을학기를 개강합니다. 등록은 8월 24일에 마감되었으나 한인 어린이들을 위해 언제든지 등록해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 해 두었습니다. 아직 한국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학부모들은 매주 토요일 2시에 어린이들과 오셔서 학교도 둘러보시고 한글 반 선생님 등의 하에 수업

참관후에 등록하셔도 됩니다. 한국학교는 우리 한인 어린이들의 정체성 함양과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한글학습은 물론 태권도, 동요 합창, 오케스트라, 예술과 공예 등의 특별활동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글 학습의 최적기를 놓치지 마시고 어린이들이 장성한 후에 항상 존경과 감사를 받는 한민족의 학부모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장

미주 한국학교 총연합회 뉴 멕시코 지역협회장 이수신



제 25회 한국어교사 학술대회 참가자 기념사진



교육원 연수팀과 뉴멕시코 한국학교를 배경으로 기념촬영

한국학교 특별활동

- (사진 설명) 왼쪽부터:
 (1)교육원 원장 강 전훈님 강의
 (2)종이접기 대회 시상, 왼쪽부터 이 선우, 이 연우 학생
 아래쪽:
 (3)종이접기 대회 시상 광경.



나의 영웅 김구 선생님

뉴멕시코 한국학교 이연우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했던 독립 운동가입니다. 저는 7월 4일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했지만, 불꽃놀이만 즐겼지 독립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독립의 참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김구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는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김구 선생님은 죄수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나중에 고향에서 돌아가서도 그 분은 교육을 위해 힘썼어요. 저는 김구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벌거나 힘센 무기를 가지는 것보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저의 나라가 없었다면 저는 무

척 슬펐을 것 같아요. 만약 저의 나라가 없다면 저의 문화도 없게 될 거고, 저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없어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한국말에는 한국인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써야 한다면 제가 한국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게 한국이 침략당했을 때 한국 국민들이 무척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1910년 우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김구 선생님은 중국으로 가서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했어요. 가족이 죽고 자신이 총에 맞았을 때에도 김구 선생님은 한국의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만약 나 자신이 김구 선생님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바라던 것은 한국이 문

화강국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 도서관에는 한국 책이 많아요. 마켓에도 한국 음식이 많고, 친구들은 종종 저에게 한국노래를 물어봐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한국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미국에 살아서 한국에 대해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나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더 공부할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를 배웠고,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사람들의 많은 노력으로 만들어진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저도 자랑스러운 한국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범 통일상 수상 이연우 학생

지역 뉴스

로스 루나스의 아마존 물류 센터 개장

(아래 뉴스는 KRQE TV 뉴스를 요약한 것입니다)

최근 완공된 로스 루나스의 아마존 (Amazon) 물류 센터(fulfillment center)가 8월 13일(화) 성대하게 개장했다. 이 센터는 7월 중순에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 새로운 ‘물류 센터’는 몇 년 전 아마존이 앨버커키에 오픈한 것과 비슷한 규모이다. 백만 평방피트가 넘는 로스 루나스 센터는 주변을 도는데 1마일 정도 되는 크기의 건물이다.

3년 간의 계획 끝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문 처리 센터의 문을 열게 된 것은 로스 루나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ABQ2”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시설은 앨버커키 외곽 웨스트 메사에 있는 ‘ABQ1’과 함께 뉴멕시코 중부의 두 번째 허브이다. 현재 약 1,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한지 5주째에 접어들었다.

아마존은 대부분 수작업이 필요한 직책을 채용했으며 여전히 더 많은 인력을 찾고 있다고 한다. 로스 루나스 빌리지 대변인은 이 일자리가 로스 루나스에 거주하지 않는 앨버커키, 리오 랜초,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 루나스는 앨버커키에게 더 이상 잠만 자는 마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로스 루나스 주민들은 앨버커키에서 일하며 로스 루나스에 살았는데, 이제 교통이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로스 루나스 마을의 수석 경제 개발자인 빅토

리아 아슬레타가 말했다.

로스 루나스 의 아마존에 일자리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Amazon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Source: Amazon fulfillment center opens in Los Lunas

by: Jessica Barron (KRQE)

Posted: Aug 13, 2024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REGIONAL SEMINAR

풀뿌리운동 Zoom 강연회

미주 한인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과 정신

“내게 한 옳음이 있으면 남에게도 한 옳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여서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편협한 일을 아니하면 세상에는 화평이 있을 것이다.”

일시: 2024년 9월 7일 (토) 오후 5시 30분

장소: 뉴멕시코 한인회관 (KAANM)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강사: 장태한 교수 (Dr. Edward T. Chang)

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대학교 소수 인종학과 (Ethnic Studies) 교수
-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 소장

강연후 한인회에서 저녁식사제공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국내외 뉴스

2024년 올림픽 폐막

2024년 7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3회 하계 올림픽은 8월 11일 프랑스 파리 인근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따내 메달 순위 8위를 차지했다. 특히 '활·총·검·발'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규모는 21개 종목 선수 144명으로 1976 몬트리올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었다. 전체 메달 수 32개는 1988년 서울 대회 33개에 이은 2위 기록이다.

금메달이 나온 종목은 모두 5개였다.


양궁이 5개 전 종목을 석권하며 가장 많은 금메달을 가져왔다. 그 외 사격(3개), 태권도, 펜싱(이상 2개), 배드민턴(1개)에서 금메달이 나왔다.

제33회 하계 올림픽에 참가국은 204개국이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올림픽휴전 위반으로 IOC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함)는 참가를 금지시켰다.

다음 34회 2028년 하계 올림픽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게 된다.



Emblem of the 2024 Summer Olympics

 2024년 하계 올림픽 메달 집계

순위 ◆	국가 ◆	금 ◆	은 ◆	동 ◆	합계 ◆
1	 미국	40	44	42	126
2	 중국	40	27	24	91
3	 일본	20	12	13	45
4	 오스트레일리아	18	19	16	53
5	 프랑스	16	26	22	64
6	 네덜란드	15	7	12	34
7	 영국	14	22	29	65
8	 대한민국	13	9	10	32
9	 이탈리아	12	13	15	40
10	 독일	12	13	8	33

국내외 뉴스

7/8월 주요소식

7월 13일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펜실베이니아주 집회 중 총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집회참석자 1명이 사망하고 도널드 트럼프 및 집회참석자 1명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7월 21일 - 현직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2024년 미국 대선 후보로서의 선거 운동을 끝내고 카말라 해리스가 대신 출마하도록 지지한다고 밝혔다.

7월 23일 -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열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하였다

7월 26일 ~ 8월 11일 ~ 2024년 하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7월 28일 -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결과로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야당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였고, 부정선거 행위 의혹으로 인해 많은 남미 국가들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마두로 정부와 외교 관계를 중단하였고 전 세계적인 시위가 촉발되었다.

7월 31일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테헤란에 있는 그의 거주지에서 암살당하였다.

8월 11일 -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주 내에서 국경을 넘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8월 24일 -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남부의 목표물에 대한 일련의 선제공격을 시작했다.

지역 뉴스

나바호족 거주 지역 전기공급사업

여기에 소개하는 뉴스는 지난 7월17일 KOB TV방송에서 보도한 “Light-Up Navajo initiative helps bring power to families in need” 제목의 내용을 번역한것이다. (글: Jacqlin Aragon 기자)

나바호족 거주 지역 내에는 전기나 수도물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에 달 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나바호족 공공 서비스 기관은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서비스 기관은 거의 8,000 가구에 전력을 공급했으며, 이제 그 노력의 5년째 들어서서 사업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NTUA 대변인인 디니스 베센티는 “이 농장에서는 발전기 소리가 들리고, 그 가족은 발전기를 끄고 키고하는 고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바호족 거주 지역에는 전기가 없는 가구가 13,000가구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라잇업 나바호(Light-Up Navajo) 이니셔티브(initiative:사업계획)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나바호족 공공 서비스 기관이 만든 인도적 상호 지원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5년째 사업이며 지난 13주 동안 주 내외에서 온 직원들이 포코너스(Four Corners)에 와서 가능한 많은 가정을 전력망에 연결하도록 도왔습니다.

“올해 라잇업 나바호(Light-Up Navajo)는 25개의 다른 나바호 커뮤니티에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연결했습니다.”라고 Becenti는 말했습니다.

50마일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150마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Shiprock, Naschitti, Utah/Arizona Navajo 지역 전역에서 약 200가구를 연결하여 긍정적인 생활 변화를 가능케했습니다.

“신선한 음식을 유지하려면 얼음 상자에 보관해야 했던 가족, 발전기를 사용해야 했던 가족에게 Light-Up Navajo사업은 힘들었던 일상적 과제를 옛날일로 만든 해결사”라고 Becenti는 말했습니다.

뉴멕시코의 유틸리티 직원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엘라바마의 직원들이 올해의 Light-Up Navajo 5 이니셔티브를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6개 주에 걸쳐 48명의 다른 봉사자들이 나왔습니다.

Dixie Electrical Operative의 수석 전선공인 Caleb Duncin은 “우리는 나바호족에게 불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uncin은 이 현장에서 일하는 마지막 봉사자들의 수석 전선공이며, 그의 승무원이 이 가족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Duncin은 “그들은 20년 동안 전기가 오기를 기다려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를 표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먼저 무엇을 사용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할 것은 에어컨과 냉장 시스템입니다.”라고 Duncin은 말했습니다.

올해의 다중 자금 지원 프로젝트는 18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Becenti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며, 내년 봄에 시작할 내년도 이니셔티브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전기를 기다리는 가족이 수천 가구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Becenti는 말했습니다.

칼럼

프락시스 헬라어 신약성경이 나오기까지 (2)

김기천

알버커키감리교회
담임목사

작년 말에 한글 본문과 영문 본문을 대조해서 볼 수 있는 프락시스 성경을 만들기로 했던 것을 접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성경책은 미국 성서공회와 독일 성서공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슬판(Nestle Aland)”이라고 불리는 헬라어 본문(NOVUM TESTAMENTUM GRAECE)입니다. 이 헬라어 신약성경은 계속 발견되는 신약 성경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수정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저의 집에 있는 것은 27번째로 편집된 것이어서 “27 편집본(27th Revised Edi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헬라어 신약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저의 컴퓨터 안에도 1800년도에 만들어진 Scrivener가 편집했던 헬라어 본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영어 성경 King James Version의 헬라어 본문으로 알려진 것이지요. 이미 200년이 지나서 저작권 유효기간도 지나버렸기에 제가 기획하는 출판용 본문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판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번역해 온 한글 영어 본문과 Scrivener의 헬라어 본문을 대조해서 볼 수 있는 성경책을 출판하기로 한 것입니다. 책 이름은 “프락시스 신약성경”입니다. 처음에는 헬라어 본문을 가운데 두고 양 옆에 그동안 번역했던 한글본문과 영어본문을 배치시

켜보았습니다. 샘플을 만들어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졌지만 보기에 괜찮았습니다.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영어 본문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문제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Scrivener의 헬라어 본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혹시나 Scrivener의 본문이 출판된 책이 있나 해서 아마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Steve Combs 박사가 편찬한 “The New Testament, The Textus Receptus 1881 Edition Edited by Frederick H. A. Scrivener”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해서 컴퓨터 안에 있는 Scrivener 본문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본문들을 전부 프린트해놓고 Steve Combs 박사의 책을 옆에 펼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프린트 해놓은 본문을 수정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몇 시간을 구푸리고 읽어나갔더니 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아파서 돌리기 힘들었지요.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목을 세우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임시 독서대를 옆에 사진처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독서대의 도움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헬라어 본문을 전부 읽어나가면서 수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Scrivener의 실제 본문을 보

고 싶었습니다. 물론 Steve Combs 박사의 책도 원문을 보고 했겠지만 저도 원문을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더니 감사하게도 하버드 신학교 도서관(Andover Harvard Theological Library)에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전자책이 있었습니다. Scrivener가 1887년도에 출판한 “NOVUM TESTAMENTUM TEXTUS STEPHANICI A.D.1550”이 책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정해 놓은 원고와 프린트한 원문을 비교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입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비교해보면서 Steve Combs 박사의 책에도 오류가 많았던 것을 찾아냈습니다. (다음호 계속)



간증문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아버지...

<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

제2회 믿음의 글 수상작 - 사랑상 >



이귀옥

집사

체리힐제일교회, NJ

태어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돈을 내본 건 교회 헌금바구니에다 넣은 1불이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 정착한 지 약 2년 후인 1975년 내 나이 20대 초반이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나의 교회 출석은 대부분의 이민자들처럼 외롭고 답답한 이민생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요 수단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당시 가톨릭 신자가 대부분이었던 친정집에서 가끔씩 수녀님들과 신부님의 방문을 기억하곤 한다. 특히 돌아가신 큰 언니의 경우 수녀가 되는 모든 과정을 거의 마칠 즈음에 다시 집으로 불려와 억지로 결혼을 할 정도로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어린 나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성당에서 세례와 본명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정착한 미국 시골 동네 인근 주변에선 찾을 수 없는 한인 성당대신 Norristown, PA에 자리한 장로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한참 후에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개신교 신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한인 교회란 이민자들의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피난처요 특히 태생이 관중(관심받고 싶은 사람)인 내겐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끄는 사교 장소로 활용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

다시 말해 무늬는 교인인데 하는 행동과 관심은 바깥 세상에 속해 있는 속물이자 날라리 신자에 불과했다. 그렇

게 노리스타운에서 시작된 교회 생활은 필라델피아를 거쳐 뉴저지로 옮겨왔어도 여전히 날라리 허물은 벗겨내지 못하면서 주일성수만큼은 지키려고 애쓴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하다.

성경책과 주일만 챙기면 신앙인 다된 것으로 착각한 나의 한심한 태도는 약 10년 전 체리힐제일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첫째, 지난 40년 동안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1부 예배 참석을 시작했다. 두 번째, 그토록 결사 반대 해오던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나로서는 그동안 그 어떤 직분이나 교회 일에는 철통 같은 방백과 교묘한 변명으로 잘 빠져나오다 그만 무너지고 그물에 걸려든 꼴이 된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다는 각오로 “집사’ 그 이상 어떠한 직책이나 직분은 내 사전에 없다’로 결단을 내렸다. 세 번째, 이상하게도 나 같은 날라리 주변에 모태신앙에 장로인 남편을 중심으로 가족과 집안이 신실한 성도들이 많게 되고, 생각이 닮아 그들과 잦은 만남과 소통을 하며 지낸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모두가 ‘권사’ 자리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집사’와 ‘권사’의 차이는 책임이라는 무게와 차원이 다르다. 신실한 마음이 짐으로 고백하고 지경을 넓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자리다. 어머니가 자식 돌보듯 성도와 힘든 이웃을 챙기는 돌봄이 돼야 하는 직분이다. 평소 열심히 참여하고 순종하는 딸들이었기에 권사 자격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증언을 할 수 있다. 나 같은 불량 집사 주변을 믿음 충만한 권사들이 장막을 쳐주고있으니 그들의 믿음에 힘입어 내가 천국 들어가는 데 백그라운드가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 해가 바뀌자 속회도 새로이 편성되는데 걸 알게 된 나는 관계자에게 혼자 출석하는 교인들의 속회에 들기를 원한다는 도움을 청했다. 속회편성이 끝나갈 무렵 내 청원과는 달리 예전 그 속에 내 명단이 들어있는 것에 의아해하고 있는 나에게 ‘속장’을 해달라는 부탁이 여기저기에서 압력처럼 조여 들었다. ‘아.. 괜히 열심히 속회참석을 했나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부담감으로 계속 버티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자격 미달임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나이 칠십에 속장이 되고 말았다.

고린도전서 15:10 말씀을 감히 내 편리대로 변형시켜 놓고 중얼거린다. “내가 속장이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평생 불량품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으신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라.”

그러나 아버지,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도로의 이름



이정길
수필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Jr. (1929~68) 은 비폭력주의의 입장에서 대중적인 직접 행동을 통한 흑인 차별 철폐 운동을 지도한 미국의 목사였다. 인종 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편견을 없애자는 평화적인 운동을 1950년대 중반에 펼치기 시작하여 흑인들이 요구하는 법적·사회적·경제적으로 완전히 평등한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는 인권 운동을 벌임으로써 전설적 인물이 되었다. 박사 학위 소지자였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다.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이하여 1963년 8월 워싱턴 광장에서 열린 평화대행진 기념 행사에서 행한 그의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는 학자들이 뽑은 ‘20세기 최고의 미국 정치 연설’ 에 올랐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문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연설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즈음 25만여 명이 구름처럼 모인 현장의 열기가 무더위를 무색하게 할 만큼 뜨거웠다. 심상치 않은 군중의 반응에 연방수사국이 그를 위협 인물로 지목하고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차별을 없애자는 인권 운동은 성공적이었고, 그의 죽음은 개인 주택의 판매나 임대애 있어서의 인종적 차별 철폐 법안의 통과를 촉진했다. “흑인 어린이들과 백인 어린이들이 마치 형제처럼 손에 손을 맞잡고 사는 세상” 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한다. 암살되기 전에 실시된 인기 투표에서 인종 차별의 폐지나 급진적인 경제 개혁의 요구에 불만을 품은 백인

들의 영향으로 33%라는 낮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의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 50년 후에는 90%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그의 운동에 찬의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꾼다.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이미 붙어 있는 도로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은 여러 나라의 관행이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바꿀 때는 두고두고 그 사람을 기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진가가 세상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일의 서부에 있는 마인츠 시의회는 킹 목사가 암살당한 3주 만에 가로의 이름 하나를 그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북부의 도시 슈베린에는 마틴 루터 킹로가 안네 프랑크로와 나란히 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른다. 안네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은신처에서 겪은 일, 생각, 느낌 등을 날마다 적어 사춘기 소녀의 성장 과정과 꽃꽂한 용기를 격조 높은 문장으로 남긴 사람이다.

킹 목사가 출생한 애틀랜타에서는 8년 후에야, 암살의 현장인 멤피스에서는 40년 후에야 가로가 각각 그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발표한 것을 보면 미국 내 955개 도로가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 남아프리카, 아이티 등에 있는 그의 이름을 가진 주요 도로까지 합하면 1,000개에 달한다.

비록 미국 내의 많은 킹로가 수입이 낮은 지역을 관통하고 있지만 수백 개의 도로를 대상으로 수행된 테네시 대학교 팀의 연구에 의하면 그 도로와 주요 간선 도로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에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공평하게 평가 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킹 박사의 운동은 예우되어야 한다는 법안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에 서명했다. 그 결과 1986년 1월 20일이 처음으로 마틴 루터 킹의 날 공휴일이 되었다. 이어서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그의 기념일로 지켜지고, 2000년 1월부터는 50개 주의 공식적인 연방 공휴일이 되어 보기 드문 그의 행적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뜻 깊게 기념되고 있다.

킹 목사의 연설문에 나오는 단순문의 반복이 평등을 부르짖는 메시지의 힘을 증폭시켜 수많은 미국인들의 의식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차별을 없애자는 인권 운동의 성공은 그의 꿈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사후 몇 십년 만에 미국 흑인들의 가난이 줄고 고교 졸업생의 수와 주택 보유율은 증가되었다. 시민권 운동에서 보인 지도력은 흑인 미국에 닫혀있던 교육 및 고용의 문을 열어젖히는 데에 크게 기여했고,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평등과 정의에 관한 그의 선견지명에 깊이 동감한다.

<13 페이지로 계속>

칼럼

나의 아버지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아버지와 함께했던 일로 가득한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너무 아름다워 지금도 그리움에 사무치곤 합니다. 일본제국주의 시퍼런 무단정치 하에서도 그들에게 굴하지 아니하셨던 모습은 차라리 어린 아들에겐 영웅이었습니다.

투철하신 민족의식과 굳센 믿음으로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을 길러 주셨던 아버지!

호탕하기 까지 하셔서 명절이 되면 교회에서 웃놀이 판이 벌어지곤 했는데, '걸 나와라 떡 사 줄께~' 소리 치시며 웃가락을 공중 높이 올리면서 신명나게 엉덩춤을 덩실덩실 추시면 교회 식구들 모두가 행복했던 추억도 남겨놓으셨던 분!

그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고 성실하셨고 정직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더불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교회 건물을 연장하여 영아원을 짓고 그 가엾은 어린 생명들을 먹일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염소를 길러 젖을 짜 해결하셨던 분! 때론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언 손을 호호 불어 가시며 어린 생명들의 양식을 준비하셨던 그분! 안 해도 될 고생을 자초하셨던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잠결에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여보! 저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놈이니 정성 다해 키워야 합니다!” 나는 안 들은 척했으나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큰 인물’이 되지 못하였음을 오늘날 솔직히 고백하며, 옛적에 질문했던 질문- 왜? 무엇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큰 뜻’을 품으셨단 말인가?

복음의 본질, 즉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르고 나서야 아버지의 은밀한 심장을 들여다본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열심으로 이 복음(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을 전했습니다.

이 비유 속 아버지의 진심, 즉 죄를 따지거나, 그 죄의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다내어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가 안 베풀었다가 들쭉날쭉하지 않으시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보다 더 힘차게 흐르는 사랑의 물결! 바로 이것이었구나!

조그마한 잘한 일도 그냥 넘기지 않으

시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 이미 그 ‘큰 인물’이 되기라도 했듯이 격려하시고 좋아하셨던 그! 아버지께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 속에서도 그 잔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 받으시기라도 한 듯,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아들의 졸업식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또 대학원-)에는 이리저리 기워 입은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 반듯하게 다려 입으신 어머니께서 보무도 당당하게 졸업식장 맨 앞에, 졸업식이 시작하기 전 1시간 전에 대전에서 새벽 기차를 타시고 올라오셔서 좌정하신 어머니! 반드시 상을 받을 아들! 추호의 의심이 있을 리 없는 듯! 그 자랑스러운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눈에 담으시려는 듯!

아들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들기며 ‘내 아들이! 다른 부모들 같이 넉넉하게 대주지 못한 어미를 용서하거라!’ 한마디 남기시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셔서 대전 시내를 씩씩하게 세 바퀴 도시며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셨다는 어머니!

학생 시절에 Rev. & Mrs. Pinkston 이라는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외아들은 미 해병 용사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과 한국 사람을 증오

(13 페이지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황재가 있으리라!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영혼과 육체의 고통이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그 고통을 비틀어 꼬면 빛이 되어 그 빛이 하늘을 납니다” 로 시작되는 한승원의 ‘다산 정약용’은 급히 나가려던 나를 붙잡습니다.

이씨조선 22대 왕 정조의 특심한 신임을 받았던 학자로 시대의 큰 산 같던 정약용! 그러나 곱지 않은 눈초리들이 안긴 18년이란 긴 유배 생활을 감수하면서 74세를 일기로 회혼일에 맞은 그 슬픈 경사는 작가의 고심이 밝혀내는 물소리. 아직도 계곡을 찢어 내리는 맑은 물소리로 생소하지 않고 간간히 들리곤 합니다.

“나이 70을 넘어서면 세상을 역순으로 살아간다. 흘러오는 강물을 가슴에 들어 있는 사발 하나에 모두 쓸어 담았다가 비우고 다시 담았다가 비우곤 하며 산다. 자기의 삶을 요강만 한 항아리에 쓸어 담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적을 오종종한 종지에 담아 간직한다.

사랑하는 자식들아,
누군들 이 세상 다녀가는 한줄기 바람 같은 나그네가 아니겠느냐. 이 쓸쓸한 길손 내가 왔던 그곳으로 이제 되돌아가야 한다. 이때껏 오래 잘 머물러 있었느니라. 세상이 나 떠나가지 못 하도록 내 모자 신발 가방 감추어놓고, 차진 밥으로 술로 차로 시로 음악으로 후히 대접해주며 붙잡아서 박차고 떠나지 못했는데.. 이제 나 떠나가야 한다.”(본문중에서)

이 글을 읽다보니 무심하고 분수없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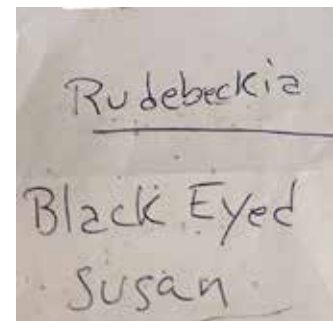
던 마음이 잠에서 깨어난듯 선뜻 질문이 나섭니다. 내 가슴에 들어있는 사발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어쭙잖은 요강만한 항아리 였는지 아니, 오종종한 종지였는지?

우리가 매일, 하루에도 몇번씩 지나는 길 양쪽에는 나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어 깊은 그늘을 어우러 줍니다. 오랜 풍상에도 잘 자라서 값없이 깊고 푸른 그늘로 그 아래를 지나는 누구에게나 청안한 쉼을 주는 이 길을 지날때마다 ‘참 우리는 천국을 산다’ 고 때마다 감격은 했을지라도 정작 그 감격하는 마음의 크기를 가늠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었습니다. 이젠 말복도 지났건만 아직도 한 낮이면 불벌더위가 머리를 벗기려는 듯 뜨겁던 날. 클리프사이드 팍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매일을 하루 같이 도서관 주변 화단을 가꾸시는 어르신은 그날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쪽에 있던 꽃들은 그렇게 예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노오란 꽃잎들 가운데 까야만 눈동자가 커다랗게 튀는, 아마도 국화과에 속할듯싶은 꽤 흔한 꽃이었지요. 6.25 전쟁 피난후 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도 없는 우리집 마당을 한가득 채우고 있었던 기억조차 불러내는 것들이었는데 막상 나하고는 통성명이 안 된 터라 마침 등판이 온통 땀범벅이신 노인장에게 그 꽃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아뽀싸!
허름한 낡은 병거지를 벗어드신 노인장 노안에서는 굵은 주름 사이로 땀줄기가 흐릅니다. 감히 '이것이 삶이다.' 를 열변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물어보아 주어서 고맙다는 듯 거침없이 아들 이름 대듯 'Rudebeckia or Black eyed Susan'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확실하게 알려고 내가 재차 물으니 부스럭 부스럭 쪼끄만 종이쪽지에 마른나무 막대기 같은 손가락으로 또박 또박 스펬 아웃 해 주셨습니다.



이 무성한 여름이 이 노인에게는 몽땅 다 무슨 대박이라도 맞은 듯 해 보입니다. 한낮 불벌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값싼 임금에 시달리는 모진 고생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흔한 꽃 무리를 보물 대하듯, 귀찮은 질문에도 귀인 대하듯 하는, 몸에 밴 절제된 모습에 멈칫! 엄청 멋져 보입니다. 얼핏 만 가지 오물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거름 되어 베푸는 과묵한 흠에 묻혀 살아오신 까닭이겠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청각 조직은 전염성이 엄청 크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듣고 본 것들은 쉬이 잊히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은 마음 판에 새겨지고 또 새겨진 것들은 가슴속에 나뭇대로의 사발들로 형체를 이루게 되니 어느 날 엔가는 대박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죄 끄만 종지로 남겨지게 되겠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찬바람 불면 곧 사라질 그 흔한 루드베키아도 귀한 보물 보듯 하시던 노인이 내 안에 손바닥만 한 작은 텃밭 하나를 그려 놓으셨습니다. 자고새면 내가 돌보아야 할 것들이 생겨나고 자꾸만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텃밭이 있어서 가끔은 뜨끈한 눈물도 흘려 가며 다시 사랑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철 바뀌어 찬바람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빼어나게 이쁠것도 없고,
 여름 한 철 흔해 빠진
 루드베키아를 품고 보듬는 마음이
 너그러이 대접할 줄 모르는 세상을 오히려 보듬으며
 다른 이들의 행적을 오종종한 종지에
 담아버리는 과썸에도 의연하여
 어두운 밤이면 엮어가도 모를 단잠에
 들게 하리라!
 뿐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
 되... 그러나 가 본 적 없는 광야!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자손손
 들이 예외 없이 지나야 할 이 낮은 길
 을 가는 동안 할렐루야!
 언젠가는 분명 부지중 도우시는 절대
 자 하나님을 만나는 황제가 있으리라!



루드베키아

도로의 이름

<10 페이지에서 계속>

우리 나라 도시의 주요 도로에도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들의 이름이 붙어 있다. 내 제2의 고향 광주에는 충장로가 있다. 선조 25년에 조정의 종군 명령을 받아 이듬해에 의병을 정돈하고 권률의 휘하에서 광재우와 협력하여 여러 차례 왜병을 격파한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김덕령 (1567~96) 장군의 시호에서 유래한 도로명으로, 유명한 유행의 거리였다. 충장공은 광주시 충효동에서 출생했으며, 무등산 기슭에는 1975년에 건립한 그의 사우 충장사도 있다.

내가 사는 뉴멕시코 주 엘버커키에는 도심에 판문전로가 있다. 재향 군인 기념관 구내의 수려한 공원에는 한국 전쟁 참전비가 세워져 있으며, 거기에는 뉴멕시코 출신 전사자 215명의 이름도 낱알이 새겨져 있다. 참전 용사회도 결성되어 매월 둘째 화요일에 만나 회의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때를 잊지 않고 우정을 두터이 한다. 회원들의 마음에는 한국전 휴전 협정이 조인된 장소 판문점이 깊이 새겨져 있다. 표지판의 잘못이 바로잡아지면 좋겠다.



Old Town 서쪽지역에 있는 Panmunjon Road sign. Panmunjom이 바른 표기다.

나의 아버지

<11 페이지에서 계속>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깨닫고 최고의 사랑으로 한국 사람을 위하여 자원하여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깨달은 사람만 가능한 최고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절대 사랑으로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절대 사랑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인 한국 사람을 위해 한국을 찾으신 그 선교사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삶과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 그들이 섬겼던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 하였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세상에서도 영생토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죄인 중 괴수 같은 내가 해방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정정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있는 힘 다하여-!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해방 받았다-!
 소년 다윗이 태산같이 우뚝 선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외쳤으리라!
 그리고 끝내 성공하였으리라!

설교문

행복, 맛보셨나요?

김동수

평택대학교 신학과 교수
평택대학교교회 담임목사

지난 8월2일부터 3일간 부흥집회에서 8월 4일 주일예배에서 설교 하신 말씀의 요약문을 소개 합니다. 김동수 강사목사님께서 주고 가신 은혜의 말씀을 회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부흥회에 참석 못하셨던 교우님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부)

〈본문〉 사도행전 22:3-8

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4)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6)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I. 들어가는 말

1.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습관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글을 써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 행복한 삶에도 원리 혹은 요소가 있습니다.

-교보문고 검색 창에 행복을 치면 24,927개가 뜹니다.

-기독교 서적 godpeople.com 창에 행복을 치면 1,763개가 뜹니다. 이 세상도 교회도 모두 행복에 원리 혹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3.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행복한 삶을 산 모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그립바 왕과 로마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 26:29.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4. 본문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요소가 7가지 나와 있습니다.

II. 바울의 행복 요소

1. 분명한 자아 정체감: "나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3절)

1) 사람이 자아 정체감이 불 분명해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아 정체감이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립니다. 예) 제일교포(자이니치) 축구 선수 정대세는 남과 북 사이에 낀 인간으로 자아 정체감 혼란으로 잘하던 축구를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아빠의 자아 정체감이 분명해서 축구를 다시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바울은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이 정체감이 분명했습니다.

-후에 그는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사도라는 자아 정체감이 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 정체감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자아 정체감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3) 예수님도 성육신하셔서 구원 과업을 이루실 때 보냄받은 자라는 자아 정체감이 분명했습니다.

-요 4: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 20: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 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 내노라.

4) 우리의 행복 어디에서 옵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에서 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또 이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직분(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혹은 직업 정체성보다도, 남녀 정체성보다도 우선 해야 합니다.

2. 신앙의 멘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3절)

1) 건강한 사람은 존경하는 멘토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증거 중 하나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말하는 것 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많지 않더라도.

2) 바울은 자신의 가말리엘 선생님을 멘토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원문은 바울이 스승인 가말리엘의 발 밑에서 배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 교육계에서 멘토가 필요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 못된 가르침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행복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는 인생의 어른, 스승, 신앙의 멘토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이것이 망가져 사람들의 행복이 깨졌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3) 목회를 해 보니, 실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를 신앙의 멘토로 두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교회 목사를 욕하면서, 또 존경이나 존중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탄의 오래된 전략 중 하나는 성도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메신저를 부정하게 하는데서 출발합니다.

4) 잠언은 아버지가 신앙의 멘토로서

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인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른의 선생이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조작에는 아이들이 어른의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는 어른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3. 삶의 열정(3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

1) 바울은 스스로를 ‘점이 있는 자’(헬, 켈로테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정(passion)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도 행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설득되는 것은 보통 논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열정 입니다. 유명한 대중 연설 강사는 논리가 영성한 경우는 많지만 열정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영똥한 열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풀이, 입신양명, 갑질/물질에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은 교회에 해가 됩니다. 특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공적인 교회를 위한 일인 양 착각하고 이런 열정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질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부정하고, 자신이 나서야 모든 일이 올바르게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비록 변화되기 전이라도 이런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명을 다하는 것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3)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도 사모함, 즉 열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주권(고전 12:11)과 인간의 열정으로(고전 13:31:14:1) 받습니다.

4. 행동: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

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 노니.”(4절)

1) 바울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비록 무지에 의한 행동이었지만 바울은 유대인으로 있을 때 자신이 믿는 신념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는 기독교를 몹시 박해했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까지 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신앙인 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어도 신념대로 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믿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옳은 사람이 못됩니다. 바울이 성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 이 세상에는 신념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잘못 알고 있어도, 아는 대로 행동하면 나중에 올바르게 깨달은 다음 전향할 수 있습니다.

3) 김영환이라는 민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위키 백과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김영환(金永煥1963~)은 대한민국의 구 운동권 인사다. 1986년 서울대학교에서 1963년 구국학생면맹을 결성하고 「강철서신」을 통해 김일성 주체사상을 80년대 학생운동권에 전파하여 주체사상과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1년 북한에 밀입국 해 주석 김일성과 두 차례 면담한 이후 북측의 실상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전향하며 탈북자 인권 운동가가 된다.

4) 이 사람이 후에 전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비록 당시는 잘못 알고 있었더라도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었기 때문입니다.

5. 신앙 체험/전향: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6절)

1) 바울은 한 때 유대인 출생한 것. 철저한 유대인 교육을 받은 것.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완벽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이상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체험을 해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가 전혀 알 수 없던 영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자신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합니다.

2) 전함은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은 전향을 할 수 없습니다.

-전향하지 않는 사람이 지조를 지키는 좋은 사람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진행/체험은 새로운 행복한 삶을 향한 문입니다.

-신앙 체험은 우리를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전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A.D. 와 B.C.가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4) 신앙 체험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성취욕이 큰 사람은 신앙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인생의 한을 신앙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한풀이의 도구로 삼으려 해도 신앙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날그날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신앙 체험에 방해가 됩니다.

5) 평택대학교교회 부목사 이근중 목사님은 바울과 같은 신앙 체험을 한 분

입니다.

-이 분은 경기 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나와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강원도 출신의 부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던 중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던 장모가 열심히 특심하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부인의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amily business니만큼 주말날 교회는 출석했고, 2주마다 한 번씩 대표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기도원 밑에 있는 계곡에서 하면서 저녁에 기도원 집회에 참여했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다시 타락했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잘 믿어 60에 신학교에 들어와 졸업하고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5. 소명/사명: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21절)

1) 바울은 회심 체험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황홀경 속에 빠져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바울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박해한 사람임을 들어 주님의 소명 받기를 두려워했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소명을 주고, 결국 바울은 그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많은 경우 소명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하나님 임재의 체험을 하고 소명을 부여 받습니다(사 6장).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소명이 생깁니다. 할 말이 보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한 데는 그의 명확한 소명 의식이 큰 몫을 했습니다. 그 소명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 박해나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소명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2) 소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소명입니다. 이것은 평신도도 받는 것입니다. 다만

(1) 목회자에게 순종하며, (2) 다른 성도들과 협동하며, (3) 훈련과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상관 없이 자신의 비전으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둘째는 직업/가정생활의 소명입니다.

3) 사람이 행복을 직접 느끼는 것은 소명 의식에서입니다. 자신의 삶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주신 소명이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설교자로서의 행복: 매 주일마다 설교하는 것이 행복한 부담입니다.

-신학자로서의 행복: 성령론, 특히 덜 연구된 방언에 대해서 연구할 때 신납니다.

-가정의 일원 으로서의 행복: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

7. 의리/신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7:25)

1)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행전을 계속 읽으면, 바울의 행복 요인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리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 의리에 의리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년간의 감옥 생활과 로마 행 항해를 할 때에 배가 바람에 밀려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로마에 가서 증언할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현실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에라도 그 말씀에 대한 신뢰는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맡긴 것입니다. 여기에 참 편안함이 있습니다.

<20 페이지로 계속>

성경

기독교 윤리 (7)

마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1) 한국과 미국의 이모티콘 감정 표현의 차이점

한국 문화에 익숙한 부모님과 미국 문화에 익숙한 자녀들은 서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에서 중요한 것은 눈이고, 미국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에서 중요한 것은 입입니다. 한국의 이모티콘에서 우리는 얼굴의 눈을 강조하는 문화이며, 한국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감정이 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는 눈치가 중요하고, 눈치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겉과 속은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타나는 감정과 속으로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겉으로 나타난 반응만 보고 행동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익숙한 미국 이모티콘은 눈이 아니라 입이 강조됩니다. 입을 강조하는 문화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문화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같은 투명한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면이라는 개념이 없기에 속으로 감추고 누르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의미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순전하고, 순수하고, 그가 하는 말이면 다 믿을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이 청결하며, 사람들 앞에서든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

결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과 속에 있는 생각이 서로 다르지 않고, 일치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순수합니다.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2) 마음의 중요성

팔복의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어로 Pure in heart 중요한 표현입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격의 중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은 우리의 몸 속에 있는 내장인 심장이 아니라, 우리의 지, 정, 의 모두가 포함된 우리 인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흘러나오기에 마음은 우리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요! 마태복음 15장 18-20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만물보다 더 거칠고 심히 부패한 마음입니다. 모든 악한 것이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니까? 악한 생각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

방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3)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누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팔복의 여섯 번째 복의 구약의 배경을 보면, 시편 24편 3-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여호와와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외면의 손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마음과 동일하니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든 얼마나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은 순수해서 때로는 마음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 당하고, 상처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

<29페이지로 계속>

선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운명

신경일

국제신학원
명예학장
전 Chaplain, UNM
Medical Center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종말 (end time)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됩니다. (마태 24:14, 마가 13:10, 로마서 11:25)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이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것임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열방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Aliyah를 뜻합니다. (이사야 11:12, 에레미야 29:14).

그다음 단계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Aliyah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목이 곧고 완고하고 교만한 땅으로 불러 모은 다음 그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야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되어서 측량 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 (living God)의 자녀라 할 것이라” 따라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자녀로 받아드리는 회복 (Restoration)의 역사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36, 37절)

오늘날 기독교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인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우리는 나의 구주 나의

믿음, 나의 교회, 나의 사역 등 “나”를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관점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개인을 가족, 공동체, 회중 나라 등 보다 큰 집단의 맥락 안에서 다루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0, 31절에 기록된 빌립보 구원에 관한 일화가 보여줍니다.

간수가 사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준 대답은 간수 개인의 필요를 뛰어넘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이고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는 예언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에스겔 (Ezekiel) 39장 28절에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는 Aliyah에 대한 구절입니다.

모세 5경 중 하나인 출애굽 사건은 구약시대에 노예 생활 하던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영도하여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을 맺도록 중보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Aliyah 작전의 효시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세상 죄에 얽매어 있는 만백성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의 피 흘려 세우신 십자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리스도 사역의 Pattern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

다. 두 번째 Aliyah는 BC538년 바사왕 고레스(Cyrus)는 칙령을 선포하여 약 20만의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가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제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 (Zerubbabel)의 인도 하에 이뤄졌고 제2차 귀환에서는 에스라(Ezra)와 느헤미야(Nehemiah)를 통해 성벽 재건과 신앙 개혁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외 덕분에 고레스(Cyrus) 왕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본국 귀환 (Aliyah)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그러나 이후 그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거스르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였고 이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킴으로써 David 가문을 보존하겠다고 하신 언약 (사무엘 하 7:16)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Aliyah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 태생한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만의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1991년에 구소련 연방이 붕괴했을 때 약 100만 이상의 소련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Aliyah 했습니다. Israel이 탄생 시 70만에 불과했던 인구가 지금은 열 배가 넘는 900만이 된 것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현재 온 세계에 Diaspora로 산재해 있는 약 800만 명 (추정)의 유대인들의 본토 환향은 하나

<28페이지로 계속>

여행

Six Flags Over Texas



송은숙

대한관광여행사 사장
Dae Han Tour US
Dallas TX

요즘 미국에서 가장 유망하고 매력적인 곳 텍사스를 아시나요?
한여름 찜통더위 속에 모락모락 올라오는 아지랑이 지열을 밟으며, 오늘도 열심히 아스팔트를 고르는 건설 노동자들과 카우보이모자를 눌러쓰고 농기계를 몰고 있는 농부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화씨 110도, 섭씨로는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도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열대지방에서 살다가 온 이민 세대들이다.

텍사스... 주의 이름은 인디언 아메리카 카도족이 사용하던 단어 타이사에서 유래되었으며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텍사스는 넓다.

미국에서는 알래스카 다음으로 넓고 본토에서는 가장 크다.

인구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많다.

미국, 특히 텍사스가 다민족이 모여 사는 강국, 강한 주가 된 데에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숨은 영웅들의 희생이 있다.

최초의 인디언과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텍사스 공화국, 미국 남부 연합을 거쳐 텍사스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투쟁 속에 세워진 이 땅, Over the six flag 텍사스를 알아보자...

1500년 초창기 황금에 대한 열망에 가득 찬 스페인 탐험가들이 지금의 텍사스에 도착했다. 그들은 이곳에 정착하였으며 1600년대에는 제법 그럴듯한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선교사들의 양성소와 요새가 설립되어 식민지화 되어갔다. 그 무렵 유럽의 또 다른 열강인 프랑스 탐험가들도 금과 은을 찾기 위해 미시시피강에서부터 내려와 요새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

인 인디언들과 전쟁과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 대부분 사망하고 요새는 파괴되었다.

그 시절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던 멕시코와 스페인 정부의 갈등으로 텍사스의 황폐하고 거대한 땅을 발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때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미주리의 은행원 "모지스 오스틴"은 스페인 정부에 텍사스를 미국의 식민지로 설립하기 위한 청원을 하였고, 스페인 정부는 이를 승인하였으나 오스틴은 식민지를 건설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그의 아들 스티븐 오스틴이 부친의 계획을 승계하여 1821년 지금도 Old Three-Hundred라고 불리는 첫 미국인 300세대를 이주시켰다.

멕시코는 1824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화국이 되었는데, 스티븐 오스틴 이후 수많은 미국인이 멕시코 정부의 승인하에 텍사스로 이주를 해왔다. 1821년부터 1836년까지 정착자 수가 30,000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러한 급격한 미국인들의 유입은 멕시코 정부를 당황하게 했고, 1830년 멕시코 정부는 그들의 이민을 중지시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멕시코와 텍사스 미국 정착민들 사이의 관계가 크게 악화하였다.

이후 크고 작은 사건·사고와 반란들이 일어났고, 결국 1835년 11월 3일 텍사스의 지도자들은 임시정부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텍사스 임시정부는 군대를 조직하여 멕시코군이 지키고 있던 지금의 샌안토니오를 공격하여 장악한다.

샌안토니오를 뺏긴 멕시코는 매우 놀랐고, 대통령 산타아나를 포함한 1,800

명~6,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을 샌안토니오로 파병한다. 그때 텍사스의 군대는 의용군으로 대부분 정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병력도 186명에 불과하였다.

1836년 2월 23일 산타아나와 그의 군대는 샌안토니오에 도착하였다. 산타아나 군단은 곡사포와 같은 대포로 샌안토니오를 수복하였으며, 텍사스의 의용군은 요새 '알라모'에서 항복과 후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기를 결정한다. 텍사스 의용군은 대령 '윌리엄 B. 트래비스'의 지도하에 끝까지 항전했고, 그중에는 '데이비드 크로켓'도 있었다.



오스틴 산 안토니오에 있는 알라모 미션의 차플은 "Shrine of Texas Liberty"로 알려져 있다.

텍사스 의용군은 1836년 3월 6일부터 13일에 걸쳐 멕시코 군에 대항하였고, 마지막에는 탄약이 떨어져 총을 막대기로 쓰면서까지 저항하였으나 186명 중 183명이 사망하였다.

살아남은 3명은 한 병사의 아내와 그녀의 15개월 된 아기, 지휘관 윌리엄 트래비스의 노예 3명뿐이었다.

이 전투는 나중에 미국에서 영웅적(?)인 이야기로 구전되어 수십편의 영화

와 수많은 책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우리말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로 'This is my Alamo'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알라모 요새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텍사스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때 알라모에서 끝까지 맞서 싸운 윌리엄 트래비스가 텍사스 임시정부에 원군을 요청하는 편지 'Victory or Death' 전문이 알라모 요새 앞 현판에 새겨져 있다.

한편, 텍사스 의용군은 전멸하였지만, 그들의 용감한 전투와 텍사스 독립을 향한 의지는 수많은 텍사스 주민에게 큰 용기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알라모 전투 이후에 산타아나 장군은 계속 전진하였지만, 텍사스 주민들은 '알라모를 기억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 의사당과 그 앞에 있는 테리의 텍사스 레인저스 기념비

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투쟁하였다.

멕시코군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텍사스 군과 지휘관 샘휴스턴 장군은 지금의 휴스턴 서쪽 지역의 샌재신토 강에서 산타아나 군을 기습하기로 결정한다. 산타아나 장군의 멕시코군이 샌재신토 강을 건너 경계를 풀고 휴식 중일 때 텍사스 의용군의 기습이 시작되었고, 훨씬 적은 수의 텍사스 군은 멕시코 군대를 물리치고 산타아나 장군까지 포로로 잡게 된다.

멕시코 공화국의 대통령인 산타아나의 생포로 그해 5월 14일 벨라스코 조약을 맺어 산타아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대신 텍사스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계약이 맺어지게 된다. 멕시코시티에 서는 산타아나가 부재중인 틈을 타 이미 산타아나를 대통령에서 몰아내고 퇴임시켜 산타아나가 멕시코를 대표할 권한은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텍사스의 승리와 독립은 막을 수가 없었다. 샘휴스턴 장군의 승리는 곧 그를 텍사스 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한다. 텍사스의 첫 이주자 스티븐 오스틴과의 경합 끝에 승리한 그는 스티븐 오스틴을 국무장관으로 선출하여 공화국을 이끌었으나 전쟁 후유증과 심각한 문제들이 직면하였고 인디언들의 급습과 멕시코인들의 위협 속에 시달려야 했다.

샘 휴스턴은 텍사스를 미합중국으로 편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예제를 금지하는 미국 북부의 반대로 쉽지 않았다. 하지만 1845년 12월 29일 미합중국의 28번째 주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인의 정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계속되는 멕시코인들과의 투쟁 속에 멕시코/미국의 전쟁이 시작되고 2년 후, 1846년 멕시코가 항복하면서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1,500만 달러에 텍사스와 남서부 대지(텍사스, 콜로라도, 애리조나, 뉴멕시코, 와이오밍,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미국에 양도했다.

이후에도 텍사스는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에 미국 연방정부 가입을 탈퇴하고 남부 연합국에 가입하여 50,000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남부 연합국을 위해 싸웠고, 1870년이 되어서야 다시 미 연방정부에 재가입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수많은 주민의 희생과 개척정신으로 이루어진 텍사스는 지금은 The Lone Star, 하나의 별을 깃발에 휘날리며 세계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 있다.

텍사스 경제는 수많은 석유회사들과 농축 산업이 이끌어왔다. 그리고 지금은 테슬라와 삼성전자를

행복, 맛보셨나요? <16 페이지에서 계속>

바울은 폭풍우를 만난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행 27:25)

2) 이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당당하게 맞닥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행 26:29. "...오늘 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소명받은 후에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믿었습니다.

-소명받고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는 17년 이상의 시간의 걸렸습니다.

-갈 1:18. "그 후 삼 년 만에" + 갈 2:1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 17년

III. 적용과 실천

1. 우리는 과연 바울과 같은 행복한 신앙인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 자는 어떤 점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신앙 성공의 요인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하겠습니다.

2.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여 행복한 7가지 요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1)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감, 5)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7) 의리입니다.

비롯한 초일류 IT기업들까지 찾아오며 사람과 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텍사스.

그 텍사스를 제대로 알고, 느끼기 위해 텍사스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필자의 주소: Daehan Tour US
2625 OLD DENTON RD SUITE 341
CARROLLTON, TX 75007
WWW.DAEHANTOUR.COM)

생활영어

영어이야기 34

Music is the universal language of all mankind.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음악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의 활력소로 옛날부터 우리 인간이 누려온 행복과 슬픔을 나누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특히 좋아하거나 하는것은 개인의 호불호(好不好)에 달려있지만, 어떤 곡은 국민전체를 감동시키는가 하면, 세계인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합니다.

음악은 여러면에서 우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연결해주어 외로움을 덜어주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지않아 우울한날 기분전환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몸이 쭈시고 아플때에도 음악을 들으면서 고통을 잊기도 합니다. 음악은 본질적으로 신체와 마음을 고쳐주는 치유제입니다. (Music in itself is healing.) 군대행진곡을 들으면 애국심이 절로 솟구치기도 하며,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모든것을 잠시 잊고 기분이 활가분해지며 절로 으~으~ 어깨춤을 춥니다. 장엄하고 슬픈곡을 들으면서 인생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Music is more than just a time - it’s a catalyst for well-being.” (음악은 단지 시간 메꾸는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촉매가 됩니다.)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선생으로 평생을 보낸 아내의 은퇴와 동시에 New Mexico에서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기로 아내와 결정한 어느날, New Mexico에 관한것을 YouTube로 보던중, 하모니카로 평소 제가 좋아하는 미국 남서부지방을 배경으로 연주하는것을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ountry music 선율이었기에 관심이 더 갔던것 같습니다. 약간 구슬픈 멜로디와 가사가 잘 어울리는 홍하의 골짜기(Red River Valley)란 노래였습니다. 딱 일절만 불러 아쉬운감이 없지않았지만, 연주자에게 평을 보내는 한편, 그분이 교회 성가대지휘자로 봉사하고 계신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10년전인 2014년 Albuquerque근교 Rio Rancho로 이사온 어느날, 아리랑식품점에 처음 들렸었는데, 그곳에서 “광야의 소리”를 접하고, 주인에게 “혹시 하모니카도 부시고 성가대 지휘자로 계신분을 아느냐”고 묻자, 다



행히 아주머니께서, 알고있다 하시며 이경화장로님을 얘기하는것 같으며, 장로님 전화번호는 모르겠다며, 대신 김기천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곧바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李장로님과 연락이되어 만남의 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로님께서 친구이신 New Jersey에서 오신 이병현씨 내외분과 같이 나오셨는데, 모두가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신분들로, 필자보다는 10 여년 연장자들이셨습니다. 이야기저예기를 나누는 중에 이병현씨가 장로님 아버님이 “고향의 봄” 작사자인 아동문학가 이원수선생이라고 소개해서 놀랐는데, 어머니가 “오빠

생각” 작사자인 최순애씨라고 알려주어 더 놀랐습니다. 두노래의 작사자가 부부인줄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동요의 작사자로 그분들이 어렸을때 쓴 동시가 방정환의 “소년” 잡지에 실리면서 인연이 맺어졌다는 사실에, 그 장본인들을 만나뵈듯처럼 반갑고도 기쁜마음에 그날 하루 발걸음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Ep.093 다락방의 소녀 (오빠생각, 다락방에서 책을 읽는 소녀. 그 아이가 기다리는 사람은 최순애,...)

이원수선생님에 대한 인연은 이것이 두번째 인데, 첫번째는 2006년 2월3일, 경남 양산에 사시는 아마추어무선국 6K5BBN의 이원석씨와 교신하면서, 양산이 이원수선생님의 출생지이고, “고향의 봄” 노래비가 마을 입구에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필자에게 들려준 것이 첫번째 인연입니다. 나중에 안것은 이원수선생님은 태어난지 얼마 되지않아 창원으로 이사가게되어 그곳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는데,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로 시작하는 “고향의 봄” 동시는 창원에서의 추억이라고 합니다. 그후 이원수선생님은 마산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마산에도 “이원수 노래비”가 있습니다. 흥난파가 곡을 붙인 “고향의 봄”은 국

민노래로서, 특히 타국에서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지며 눈물이 나오는 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 뚝뚝 뚝뚝 새논~에서 울고 ♪”로 시작하는 박태준곡의 “오빠생각”을 더 좋아합니다. 물이 있는 시골 논에 많이 서식하던 뚝뚝새(뚝부기)는 지금은 멸종위기에 처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수컷은 머리에 수탁과 같은 벼슬이 있어, 영



어로 “Watercock”이라 부릅니다. 세번째 인연은 4월 어느날 YouTube에서 “노가리 사랑방”을 보던중, 93회 소재인 “Ep.93 다락방소녀” 이야기가 이원수소년과 최순애소녀와의 일제시대 어린이잡지였던 “소년”잡지에 당선된 동시(童詩)로 맺어진 순애보를 그린것인데, 가슴뭉클하게 만든 영상입니다. 이것이 3번에 걸쳐 일어난 이원수선생님과 제가 간접적이거나 만나게 된 우연입니다. 이원수와 최순애 순애보 이야기는 YouTube에 여럿 있습니다. 조금 쓸쓸한 느낌이 드는 동요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도 이원수작사로 정세문곡인데, 겨울방학때의 어린시절이 생각나는 곡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시절을 거치면서 동요를 부르며 자랍니다. 학교들어가기전에 “♪ 셋셋셋 아침 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 기러기 ♪”를 부르며 손바닥을 치면서 노래한후, “♪학교종이 땡땡친다 어서모이자♪,”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 “산토끼”를 배운후, “♪엄마 엄마 이리와 요것 보श्य 병아리때 뽕뽕뽕뽕 놀고 간 뒤~에 미나리 파란 짝이 돌아났어요 미나리 파란 짝이 돌아났어요 ♪”와 “♪ 산골짜

의 다람쥐 아기다람쥐 ♪”를 부르며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뽐니다. 동요중에 박재훈곡이 많은데 “♪ 시냇물은 졸졸졸~졸 ♪,” “♪ 산산산 산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도 그의 곡입니다. 박재훈선생은 찬송가도 많이 작곡했는데, 동요인 어머니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하지만 ♪”도 원래는 찬송가로 작곡된 것입니다. 이노래는 “♪날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로 시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함께 어머니(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절로 나오는 곡입니다. 구슬프게 느껴지는 곡은 제목이 ‘가을밤’인 “♪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기러기 기러기력 날아갑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맑은 하늘을 엄마 엄마 찾으며 날아갑니다 ♪”입니다. 이노래는 1920년 일제시대 때, 박태준이 윤복진동시에 곡을 붙였는데, 윤복진이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1960년에 새로운 가사(이태선이 새로 쓴 “가을밤 외로운밤 별레우는밤”)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의 첫 동요라고 할수있는 이곡의 원래 가사를 바꾼것에 마음이 편치않습니다. 이곡은 가수 이연실씨가 이원수선생의 동시 “짚레꽃”을 약간 고쳐 시대에 맞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곡조도 그렇고 가사도 약간 철학적인 동요로는 “♪넋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싶어 강으로 간다 ♪”를 들수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동요로는 어린이날 노래와 어린이 노래가 있습니다. “♪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별판~을 오월은 푸르고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 다른하나는 “♪ 하늘 향해 두팔벌린 나무들 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 같이 ♪”가 있으며, 가곡같은 노래로는 “모래성”과 “바닷가에서”를 들수 있습니다. 설날노래로는 “♪ 까치 까

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가 있으며, 동요는 아니지만 해방과 6.25전쟁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서인지 애 어린 할것없이 “♪ 압박과 설움에서(알바꾸 뒷바꾸)로 애들은 불렀음) 해방된 민~족 싸우고 싸워서 세운 이나라 공산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란 노래를 자주 불렀으며, “♪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로 시작되는 “꽃밭에서”는 사뭇 서정적인 동요입니다. 그리고 딸과 아빠와의 사랑스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요즘의 우리나라는 눈이 잘 오질않지만 필자가 어렸을때에는 겨울에 눈도 많이 내려, 눈길에 썰매도 타고 빙판에서 팽이치기도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눈길 노래로는 “♪ 캄캄한 밤중에 하얀눈이 왔구나 하얀눈이 밤새도록 내렸구나 가자 가자 눈길로 자꾸가자 북으로 우리가 가는 이길이 백두산까지 뻗혔다 ♪”, 그외에 “♪ 한 겨울에 밀짚모자 꼬마사람 ♪”과 “♪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를 부르며 신나게 겨울을 지냈었지요. 힘을 돌아주는 어린이 행진곡으로는 “♪ 나아가자 씩씩하게 대한소녀아 태극기 높이 들고 앞장을 서서 ♪”와 “♪ 우리~는 무럭 무럭 자라나는 무궁화 우리~는 송이송이 나라 꽃송이 너희 고향은 어디냐 너희 고향은 어디냐 함경도다 전라도다 평안도다 경상도다 황해도다 충청도다 ♪”를 들수 있습니다. 필자가 군대에 있던 1972년에 발표된 “♪ 동구밖 과수원길 아카시아꽃이 활짝 폈네 ♪”로 시작하는



기행문

차코문화국립역사공원



이경화

알버커키감리교회
장로

내가 취미생활의 하나로 시작한 미국 남서부 여행안내 웹사이트로 www.AmericaSouthWest.com 을 지난 2019년 만들어 관리하면서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업데이트해 가고 있다. 최근에 업데이트를 다시 하면서 차코 문화 국립 역사 공원(Chaco Culture National Historical Park) 소개에 관한 부분에 사진 몇 장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일박 이일 여행을 떠났다. 아침 8시에 집을 나서서 I-25로 북상하다가 550번 도로로 바꾸어 쿠바를 지나고 10시가 조금 지났을 때 차코 캐니언 역사공원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도달했다. 이 지점에는 초록색 공룡을 만 들어서 피크닉 테이블과 같이 옆에 세운 Sinclair 주유소가 있어서 차코캐니언 갈 때는 꼭 이곳에 들러서 기름을 조금이라도 넣고 간다. 여기서 부터는 나바호 인디언 땅. 7900번 카운티 도로로 들어가서 7950번 도로로 바꾸어 공원까지 21마일을 차를 몰고 가면서 마음은 현대문명의 세계에서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로 들어가는 기분으로 전환된다. 포장도로로 8마일을 간 다음 비포장도로로 바뀌



공원 입구 간판

어 13마일을 간다. 처음 10마일은 관리가 잘 되어서인지 40마일 속도에서도 별로 불편을 못 느꼈으나 마지막 3마일 정도 길은 울퉁불퉁 이어서 20마일 속도에서도 불만스러웠지만 곧 공원에 들어서면서 다시 포장도로가 나와서 포장도로의 고마움을 다시 알게 한다. 그리고 공원 입구 간판이 ‘오시느라고



피크닉 테이블에서 본 파하다 뷰트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듯 나타난다. 사암 벽돌을 쌓아서 만든 간판은

<영어이야기/22 페이지에서 >

서정적인 동요 “과수원길”은 지금도 자주 듣는 동요중 하나입니다. 이노래는 Spain의 어린이합창단도 곧잘 부르며,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던 만화가 박수동씨 만화에도 곧잘 나오는 곡입니다. 필자는 한국에 있을때 KBS방송 “누가 누가 잘하나”의 열혈 fan이었습니다.

“오빠생각” 2절로 끝맺으며 동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기력 기력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뿔 귀뿔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어집니다 ♪”
 나이가 들은 지금, 어렸을때 불렀던 동요가 새삼 그림고 마음이 밝아지는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유적지 건물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는 구조물이었다. 주유소에서 떠난지 30분 만에 공원에 들어선 것이다. 공원 안에 들어서서 약 1마일을 들어가면 차코 캐니언의 아이콘으로 볼 수 있는 파하다 뷰트(Fajada) Butte) 를 바라보는 전망대가 나온다. 차를 세우고 사진을 몇 장 찍고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숨들리며 뷰트 언덕 위에 있다는 썬대거(Sun Dagger) 라는 유적지를 생각해 본다. 썬대거는 선조 푸에블로 인디언의 태양 관측소 같은 곳이다. 방문객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어서 가 볼 수도 없지만 허가한다 해도



115m 높이의 고지에 있다는 유적을 젊은 나이도 아닌 우리가 어찌 올라가 보려는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다. 천 년 전 푸에블로 선조들이 태양 관측을 위해 노력한 것을 생각해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공원 웹사이트에 소개된 글과 유튜브 시뮬레이션 설명에 의하면 이곳에는 사암 돌 판석 장을 적당한 간격을 두고 포개어 절벽 바위 앞에 세워놓았는데 돌 판의 그림자가 절벽 바위에 비치게 되고 돌판 사이로 비친 햇빛이 단도 칼(Dagger) 모양의 햇빛이 정오경에, 바위에 쏘이는데 그 위치



공원 방문자 센터

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점을 보고 나선형 무늬를 절벽 바위에 그려서 단도 칼 모양의 햇빛 비치는 위치를 보고 일년 중 동지, 춘분, 하지, 추분의 날짜를 알아낸 것이다. 달의 뜨고 지는 위치도 관측해서 달의 위치가 18.5년의 주기가 있음도 발견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다시 차로 조금 더 들어가 방문자센터에 도달한다. 방문자센터 주차장 옆에는 몇 개의 피크닉 테이블이 있어서 그늘 밑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로 알고 가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이곳에는 식품을 살 수 있는 곳이나 식당이 없으므로 먹을 것은 꼭 준비해서 와야 한다.

방문자센터 앞에는 알림판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차코캐니언 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世界 遺産, UNESCO World Heritage Site)에 등재된 사실을 밝히는 동판이다.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다. 미국에는 21개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등재되어 있는데 뉴멕시코가 차코캐니언, 타오스 푸에블로, 칼즈베드 동굴, 3개의 세계유산을 갖고 있다.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니언과 콜로라도의 메사베르데국립공원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를 합하면 미국 남서부가 미국 전체 유네스코 세계 유산의 1/4을 갖고 있는 셈이다. 차코 캐니언의 유적지 보호역사를 보면 1907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 국가 기념물(National Monument)로 지정했고, 1980년 국립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방문자센터에 들어서니 게시판에 쓰인

오늘의 가이드 투어(Guided Tour) 시간표가 보인다. 레인저가 안내하는 무료 투어가 1시에 푸에블로 보니토 트레일 시작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광고다. 방문자 사인북에 사인하면서 방문자가 써놓은 기록을 보니 타주에서 방문한 사람이 뉴멕시코 방문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외국에서 온 방문객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국에서 이렇게 외진 곳을 찾아온 방문객은 고고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여행객일 것으로 짐작된다.

레인저에게 나의 지갑 속에 있는 국립공원 패스를 꺼내어 보여주니 레인저 아저씨가 “와! 종이로 된 패스 오랜만에 본다”라고 큰소리를 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즈음 발행하는 패스

는 플라스틱인데 내가 시니어 패스를 구입했을 2002년에는 종이로 된 패스였다. 몇 가지 공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 공원까지 오는 도로의 마지막 3마일이 몹시 나쁜데 포장도로가 될 가능성이 없느냐고 물으니 나바호 네이션에 속한 도로이어서 잘 모르겠다고 한다. 방문객센터에 있는 작은 영화 상영실에서 공원을 소개하는 영상도 보고 전시장도 둘러보고 책과 기념품 상점에서 유적지 셀프 가이드 소책자 몇 개를 사 들고 나와 역사공원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방문자 센터 주차장에서 트레일이 시작해서 가는 유적지로 우나 비다(Una Vida)가 첫 번째 유적지로 발굴하지 않고 보존된 유적지가 있으나 전에 왔을 때 본 유적지여서 바이패스를

차코캐니언의 역사공원
푸에블로 보니토 상상도

방문자 센터 전시장에 있는 푸에블로 보니토 유적의 모형

하고 다음 유적지로 향했다.

공원 유적지는 왕복 8마일의 일방통행 순환도로를 돌며 방문하게 된다. 순환 도로에서 첫번째 나오는 주차장에서는 훈고 파비(Hungo Pavi) 유적지를 방문하게 된다. 역시 발굴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유적지로 D자 형태로 지은 대형 건물 유적지이다. 건물의 뒷부분은 4층건물이었을것이라고 하며 일층 방의 유적은 72개가 된다. 유적지의 동편에서 캐니언 절벽을 보면 사암 절벽을 깎아 만든 계단을 볼 수 있다. (일반인의 접근은 금지되어 있다.) 이 계단은 당시에 차코인이 만든 직선 도로 시스템의 한 부분 일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 나오는 주차장에서는 체트로 케틀(Chetro Keti)과 푸에블로 보니토(Pueblo Bonito) 두 유적지를 가 볼 수 있는 곳이다. 체트로 케틀은 차코캐니언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 건물유적이다. 2-3층에 발코니를 만든 흔적이 있고 광장에 접한 벽에 열주(colonnade)라는 기둥을 사용한 건축 방식을 도입한 특이한 점이 보이는 유적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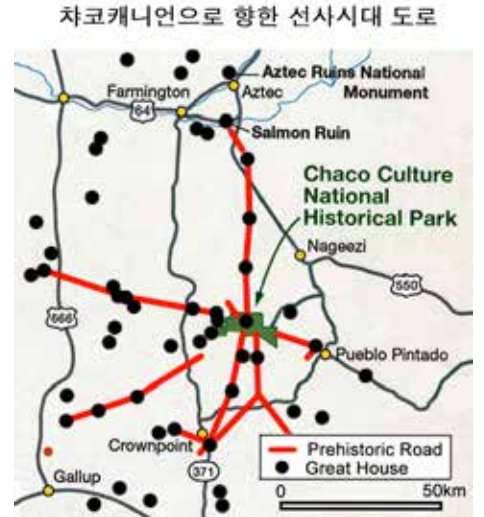
푸에블로 보니토는 차코캐니언에서 가장 큰 대형건물유적이다. 푸에블로 보니토는 서기 850년에서 서기 1150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 유적으로 이곳 공원에 있는 유적 중에서 가장 크고 차코 문명을 대표할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푸에블로 보니토(Pueblo Bonito)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서 "아름다운 마을"이란 뜻이다. 4층 구조로 지은 대형 아파트 같은 건물로서 651개의 방과 40개의 키바를 가진 건물 유적지이다. 5년에 걸친 발굴결과로 유물 60,000여 점을 발견했고 유물은 화물차에 실려 뉴욕 박물관에 보내어 보관되고 있다. 반달모양이라 할 수도 있고 "D" 글짜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양으로 건물 전체 윤곽을 잡아 설계하여 지었다. 건물의 배치가 남향이 되도록 지었는데 반원의 직경 부분이 되는 전면 벽이



푸에블로 보니토 유적

층분과 추분때의 해 뜨는 지점과 해지는 지점을 이은 직선에 일치하게 배치했다. 이 건물은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쓰여진 공공건물로 추정한다고 한다.

순환도로로 나가서 세 번째 주차장에 들어서면 옆자리에 푸에블로 델 아로요 유적이 있고 트레일로 걸어서 들어가 킨 크레스토(Kin Klesto)를 볼 수 있다. 킨 크레스토에서 트레일은 메사 절벽 틈으로 올라가 1.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푸에블로 알토(Pueblo Alto)로 연결된다. 푸에블로 알토는 메사 꼭대기에 있어서 북쪽으로 트인 광야를 내려볼 수 있는 유적지이다. 차코인들은 차코캐니언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는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곳 푸에블로 알토로 거미줄같이 모이게 했던 흔적을 희미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진과 인공위성 사진으로 관측한 바에 따르면, 차코 캐니언을 중심으로 거미줄같이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직선도로를 합치면 약 650km나 된다고 한다. 운송수단으로 쓸 만한 동물이 1000년 전 당시에는 없었고 바퀴나 마차가 발명되기 이전에 폭이 9~10m나 되는 직선도로를 계획적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수수께끼이다. 도로를 만들 때는 산이나 언덕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이를 피해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계단을 만들더라도 직선을 고집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도로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 구부러져야 할 경우에도 완만한 커브를 만들지 않고 직선과 직선이 교차하는 급커브로 만



든 것도 특징이다. 마지막 네번째 나오는 주차장에서 카사 린코나다(Casa Rinconada)를 방문하게 된다. 푸에블로 보니토(Pueblo Bonito)를 마주 보는 캐니언 건너편 언덕에 있다. 카사 린코나다는 발굴된 키바 중 가장 큰 규모로 직경이 64피트(20m)가 되는 대형 키바이다. 키바의 안벽에는 34개의 벽감(niches)이 둘러 싸고 있으며 길이가 39피트(12m)가 되는 특이한 지하 통로도 있는데, 아마도 행사 중에 공연자들이 쉽게 입장할 수 있게 하여 회중을 놀라게 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설



카사 린코나다의 키바유적

도 있다. 키바는 종교적 의식을 하는 신성한 지금의 교회와 같은 곳이라 볼 수 있다. 대형 건물 마을마다 여러개의 키바를 지어서 종교적 의식을 행했을 것인데 카사 린코나다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왜 차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키바를 지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

<28 페이지로 계속>

수필

오수나 너서리

어느 분이 그 너서리(Nursery)를 운영하셨지요? 안명순 집사님과 안장환 선생님이 힘든 세월에 그 많은 고초를 이겨내며 그 너서리를 운영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수나 길(Osuna Road)가에 있는정원 조경의 묘목과 꽃을 판매하는 너서리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 셋방살이하며 교회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을 목격하셨지요. 저희는 또 안명순 집사님의 남편이신 안장환 선생님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Charisma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영어에 charisma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열정, 열성, 정열, 패기, 능력, 은사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서 우리 교회에도 charisma의 바람이 불어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장환 선생님이 어느 날 교회를 위해 2에이커 되는 땅을 기증해 주시면서 셋방살이 그만하고 한인교회를 지으라고 권했습니다. 교회에 charisma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셨고 저희는 주신 부지에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 선생님은 새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앞마당 Landscaping을 Free로 만들어 주시며 교회 입구에 소나무를 심어주시고 그 나무는 오래 사는 나무니까 교회도 오랫동안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니까 한국국화인 무궁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무궁화나무를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꽃이 피도록 Landscaping을 해주셨지요.

저희가 주일에배를 마치고 오수나 너서리에 가면 안 선생님은 “김장노님 오

늘 교회는 안 나오시고 여긴 또 무엇을 사러 왔어요? 교회에서는 안 보이시던데요?”, “뭐라고요? 교회 안 선생님 나오셨어요?”, “몰랐구먼요!”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고 했지요.

아무튼 어떤 꽃이나 나무를 사든지



10% discount 해 주셨지요. 어느 날 대추나무를 주시면서 이것은 Free로 드리는 것입니다. 잘 키워 보세요. 주신 대추나무를 열심히 키워서 대추를 따 먹게 되었고 열매가 익을 때가 되면 땅을 나무에 씨워서 새들이 따먹지 못하게 했었지요.

대추를 따 먹을 때마다 오수나 너서리가 교회를 위해 부지를 기증해 주셨던 일, 그 일로 인해 성전이 지어진 일과 성전이 완공된 첫 주일, 로마합창단이 방문해서 알버커키 한인 여러분과 셋방살이 할 때 도와주신 미국교회 여러분을 모시고 음악회를 가진 그때의 감격을 되새기며 안 선생님 내외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나성에서 힘들게 공부하던 시절에 동양선교교회를 창설했던 당시에 체험했던 감격도 잊지 못하



김준호

Plano Fairview 교회
장로

고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를 세우신 임동선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섬기시며 그분의 열렬한 charisma를 보았지요. 저는 그때 시간에 쫓기면서도 성가대 연습도 참가했고 하품을 하면서도 임원회에 출석했고 임 목사님의 감명 깊은 설교를 들을 때 모든 피로와 잡념이 없어지고 말씀의 자석에 딱 붙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 권사는 아무것도 없는 살림 꾸려나가느라고 무척이나 고생했었지요! 몇 폰 남지 않은 check book을 가지고 sale 하는 가게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조금이라도 절약해야만 하는 생활이었지만 교회에 나가서 친구들과 조용하게 예배 드리며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음이 편안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피난살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지낸 것들도 기억나네요. 제가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교복을 입고 교회에 나갔더니

“이 학생이 누구의 아들이냐?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느냐? 등 별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교회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말 못 할 가난뱅이여서 옷도 허름하고 머리도 잘못 깎고 학생회에 모이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요. 많은 교인은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복형 권사님은 달랐습니다. “너는 대학교도 입학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교회학교에서 가르치고 성가대도 하라고 강권해

<29페이지로 계속>

수필

8월의 크리스마스

차학주

풍성한 교회, 담임목사
Richardson, TX

양로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배웁니다. 특히 양로원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의 지혜와 명철은 사역의 범위와 방법을 생각하게 합니다. 비록 치매로 고생하시지만 정신이 맑으실 때는 젊은(?) 목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말합니다.

그 중 한분이 백인 할머니입니다. 이분 때문에 영어예배가 시작되었고, 골방에서 드리던 예배가 넓은 카페테리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입니다.

온통 한국말만 가득한 예배에 참석하신 미국 할머니. 모든 것이 낯설으실 텐데 꼬박꼬박 예배에 오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찬송, 기도, 말씀 등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찬송 음률은 같아서 좋다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거의 구십이 다 되셨는데도 어느 한국석 호트러짐 없이 늘 단정하시던 분. 곱게 빗은 머리, 단정한 옷매무새, 깨끗하게 정리된 손톱. 특히 예배 때가 되면 마음 다잡는다는 표현으로 머리 빗질 한 번 더 하시고, 옷 먼지를 털 후 휠체어를 미십니다.

그렇게 천천히 예배에 오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2-3분 걸릴 거리를 힘들게 휠체어를 밀고 오시니 때론 10분도 넘게 걸립니다. 간혹 양로원 스텝들이 밀어주면 쉽게 빨리 오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힘겹게 오십니다.

방에 가보면 진실한 신앙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 닳고 닳은 성경

책, 뒤틀린 지 오랜 나무 십자가, '기도하는 손' 그림 한 점, 항상 머리맡에 두고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가족사진 등. 이 모든 것이 할머니께서 아끼는 것들입니다.

어찌다 보는 침대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시는 모습은 경건하다 못해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항상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옆 침대에 계신 분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몸짓은 지금까지도 눈앞에 선합니다.

할머니께서 어느 날 예배 후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남 들을세라 귓가에 조용히 속삭입니다. '크리스마스 찬송을 불러줄 수 있냐?' 때는 매일 화씨 100도(섭씨 38도쯤)를 웃도는 8월.

순간 당황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크리스마스 찬송을 듣고 싶으세요?' 돌아온 대답 '듣고 싶다' 입니다. 창밖 꽃들은 뜨거움으로 고개 떨어뜨리고, 새들도 나뭇잎 그늘 속에 몸을 피하고, 흘러가던 구름도 더위에 지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여름.

얼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시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하면 주먹만 한 눈 펄펄 내리고, 눈썰매 타고 언덕 내리달리고, 눈송이 송송 던지며 눈싸움 하고, 언 손 호호 불던 이미지만 있는데 엄청 뜨거운 날 크리스마스 찬송을.....속마음으로 '하~~~'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를 보니 간절함이 똑똑 떨어집니다. 그리곤 한 마디 덧붙입니다. '크리스마스 찬송 들어본지 십수 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양로원에 들어온 이후 한 번도 성탄절 찬송을 들

어본 적도 불러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좀 빨쫂하더라도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한영 찬송가가 있었던 터라 영어로 성탄절 찬송을 조용히 부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4절까지 부르자 할머니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어진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어린 주 예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기까지 부르자 할머니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그런하던 눈물방울들이 한꺼번에 모여 '두루룩~~'하고 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감격 어린 겁니다.

정신없이 '참 반가운 신도여' '저 들 밖에 한밤중에'를 부르자 주변이 웅성웅성합니다. 굴러가지도 않는 영어발음으로 성탄송을 부르냐고 정신이 없어 미처 주변 반응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그런데 어느새 사람들이 구석진 홀에 가득합니다. 찬송소리를 듣고 오신 겁니다.

'천사들의 노래가'로 이어진 찬송이 '천사 찬송하기를'에서 멈추자 함께 했던 분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박수를 치며 흥분된 얼굴로 좋아들 하십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찬송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8월 뜨거운 날씨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한 번 더 부르고 마무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오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8월에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자 하셨을까? 굳이 8월에?

궁금증이 2주 후에 풀렸습니다. 그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셨습니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평온하
게 가셨다는 침언과 함께. 그 때 깨달
았습니다. 할머니는 예수 그리스도께
서 이 땅에 오셨음을 찬송하고 싶었
던 겁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
나님 아버지를 뵈기 전 마지막으로.

어쩌면 12월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
다는 생각에 미리 성탄을 축하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예까지 미치지 ‘아차~~’ 했습니다.
그저 교회력에 따라 12월에 성탄예
배를 드렸던 게 부족함으로 다가왔
습니다.

생각해보면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고
천국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작년 성탄예배를 드리지 못했
는데, 올 해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돌
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
들은 어쩌면 성탄예배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하나님께 가셨는지도 모
릅니다.

먼저 가신 백인 할머니께서 귀한 가
르침을 주셨습니다. 벌써 십 수 년이
넘게 그 이후 매년 8월이 되면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찬송을 힘차게
부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
마나 좋아들 하시는지 모릅니다. 밝
고 경쾌한 리듬에 모두들 어깨춤을
추십니다.

양로원 예배는 ‘기억하기’ 위함입니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
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
내주심을 기억하기 위함.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
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
아가셨음을 기억하기 위함. 성령 하
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성경을 통
해 가르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 이런 것들을 기억하

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도 성탄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모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이 이
땅에 왔음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구
원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
으로 오셨음을 찬양했습니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people with
whom He is pleased.”

(Luke 2:14 NASB)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
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
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눅2:14 표
준 새번역)

이 찬양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
속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8월28일 뜨거운 8월에 성탄예
배를 드리고 기뻐하는 차학주 드림)

이스라엘의 회복 <18페이지에서 계속>

님의 Timeline에 속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교회는 반유
대주의 (anti-Semitism)을 전파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냉대 해온 집단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
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함과 불순
종, 배타성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
도 하고 풀어야 합니다. (시편 122편
6절) 이방인의 패인 교회 시대가 휴거
(Rapture)로 끝나면 마지막 한이레의
이스라엘 시대가 오며 이어서 대환난
의 시대가 오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
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 지기 전
에 우리는 모두 휴거 신부가 되어 대영
광의 날을 맞이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Maranatha! 주 예수여 어
서 오시옵소서 (다니엘 19:27)

뉴멕시코에서 신경일 드림

<차코문화국립역사공원> 25페이지에서 계속

다. 아마도 마을사람을 위한 키바가 아
니라 차코캐니언의 온동네 주민을 대
상으로하는 특수목적이 있어서 크게
지은 키바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카사 린코나다를 마지막으로 보고 순
환도로로 나오면서 새로운 질문들이
떠 오른다. 농사짓기에 좋은 산환강이
나 리오그란데강 강가에 터를 잡지 않
고 이렇게 외지고 건조한 광야에 있는
차코캐니언에 도시를 세운 이유는 무
엇일까? 건축에 필요했을 통나무가 22
만 5천 개로 추정한다는데 폰테로사 소
나무와 전나무를 50마일이 넘는 곳에
있는 추스카 산(Chuska Mountain)
에서 마차도 없는 당시 순수 인력으로
운반해 온 엄청난 사업을 어떻게 해내
었는지 궁금해진다. 더 궁금한 것은 수
백 년 동안 장기간의 역사로 이룬 도
시를 갑자기 왜 버리고 떠나버렸는가?
고고학자들이 앞으로 답을 찾아낼 것
을 기대하지만 문자 기록물을 선조 프
에블로인이 남겨 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긴다.
우리는 차코 캐니언을 떠나 다음 목적
지인 아즈텍 루인즈 내셔널 모뉴먼트
로 향했다. 그곳은 차코 캐니언의 문화
가 번성했을 때 외곽 도시의 하나로 발
전해서 세워진 마을이기 때문에 작은
차코문화 역사공원과도 같은 곳이다.
아즈텍루인즈에는 카사 린코나다에서
본 키바의 크기에 가까운 Great Kiva
가 있는데 이 유적은 옛날의 모습으로
복원시킨 키바여서 더 큰 호기심을 갖
고 550번 도로로 나와 파밍턴 쪽으로
달렸다.



아즈텍 루인즈에 있는 복원된 대형 키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17페이지에서 계속**

이 청결한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여호와와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이나 오늘이나 세상이 악한 이유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산 위의 동네, 언덕위의 도시 같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4)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사람

중세의 신학자,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A.D. 1090년 프랑스 디종에서, 부족함이 없는 디종의 귀족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많은 귀족의 재물에, 귀족의 영광을 버리고 20세에 수도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버나드가 지은 시가 우리 찬송가 85장에 나와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을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귀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버나드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는 마음이 전해져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추구하던 것을 내려놓고, 구주를 생각만해도 주 얼굴 뵈을 때에야 얼마나 좋을지 생각하며 감사함을 누립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

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그 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종말의 그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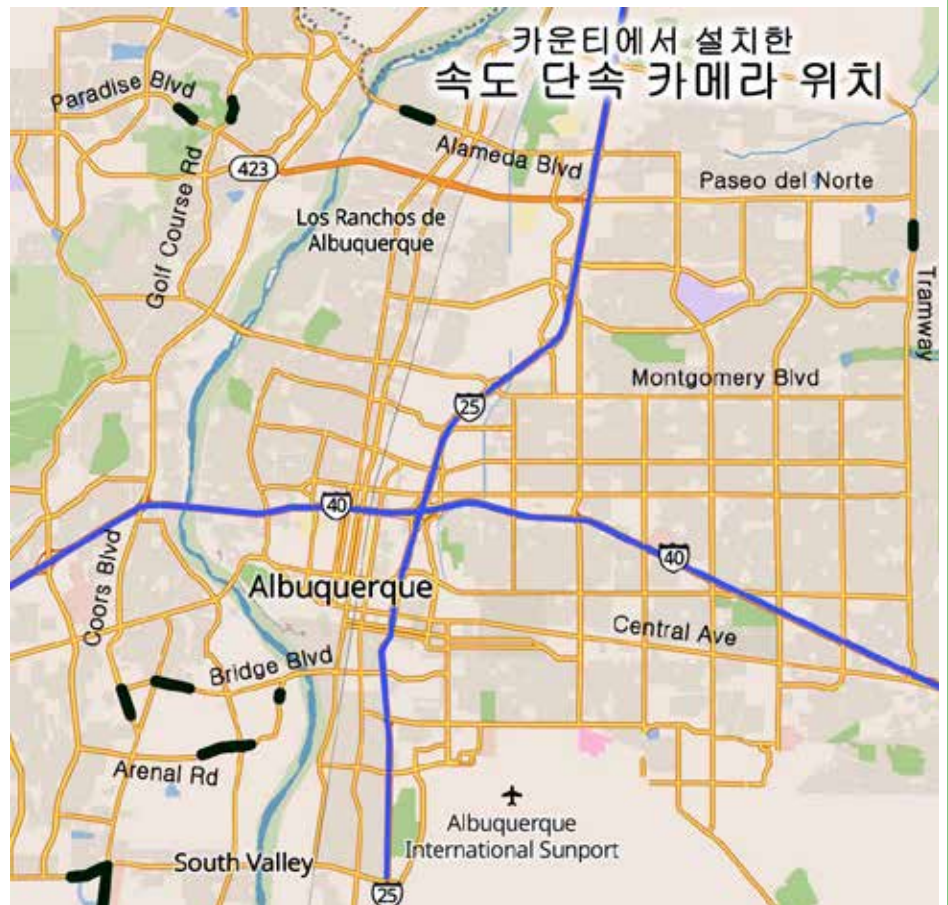
**<오수나 너서리>
26페이지에서 계속**

서 다 하게 되었지요. 그 당시 유 권사님은 오페라 바리톤 가수로 명성을 날리던 때였지요. 제가 주일학교 6학년 생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최영기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제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전자공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

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더니 관심 있게 듣더라구요. 그 후에 그분이 휴스턴에서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통화를 했더니” 김 선생님 저를 기억하세요? 최영기입니다 김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로 저희를 지도할 때 가끔가다가 짜장면을 사 주셔서 먹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까맣게 다 잊어 버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했더니 “그때 김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잘해 주셔서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기적이 아닐까요? 최 목사도 전자공학을 전공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지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는 저의 성경공부반 학생 중에서 목사님이 나올 것 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다음호 계속)

**버날리요 카운티의
속도 단속 카메라
9월부터 가동**

버날리요 카운티는 12개의 속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새로운 자동차 속도 단속을 9월에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웹진, voice.kumcabq.com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다.)



Korean Churches in NM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교회 웹사이트:www.galileeabq.com



알버커키 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10:00 am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온라인예배방영: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10:30am
(15분전에 찬양 시작)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 88005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사무회장:김지수 전례부장: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 (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505)-503-9846
웹사이트:cafe.daum.net/abq-catholic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11:45pm
수요모임 11:30a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 505-797-2211
커틀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틴 505-286-3535
www.dahnyoga.com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RIMON PC
500 Marquette Avenue NW,
Suite 1200
Albuquerque NM 87102
(505)437-2220
youngjun.roh@rimonlaw.com

부동산 Realtors

윤혜영 Hye Young Yoon
My-A Realty
(917-862-1782)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세탁소 Dry Cleaners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식당 Restarant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스시벅스(SUSHIBUCK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

Asian Pear
8101 San Pedro Dr. NE, D
ABQ (505)766-9405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Kokio Korean Fried
Chicken
8019 Menaul Blvd Suite A
ABQ(505-308-3179)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G
NW, ABQ NM
(505-503-8699)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웹사이트:thegaragenm.com

주택용자 Loan Officer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중재서비스

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505-323-7700)

Dr. 제임스 구
James Ku Albuquerque
General Dentistry
9316 Montgomery Blvd.NE
Albuquerque, NM 87111
(505-800-5050)
웹사이트: jameskudds.com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71-2000

한 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회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Lotus Dumpling House

www.lotusdumplinghouse.com

1807 2nd Street, #35
Santa Fe, NM 87505

Tuesday-Saturday: 10am-8pm

Sunday: 10am-7pm

505-303-3740

최리엔



Tuesday-Friday 11:00am-2:30pm
4:30pm-8:00pm
Saturday 11:00am-8:00pm
Sunday - Monday Closed



전화: (505) 308-3179

웹사이트: kokioabqnm.com

주소: 8019 Menaul Blvd NE Suite A
Albuquerque, NM 87110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라스베가스 Las Vegas</p>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p>산타페 Santa Fe</p>		<p>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p>
<p>치과 Dentist</p>	<p>미장원 Hair Salon</p>	<p>손톱미용 Nails</p>	<p>리커스토어 Liquors</p>	<p>식품 Korean Grocery</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p>	<p>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p>	<p>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p>	<p>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p>
<p>라스크루세스 Las Cruces</p>	<p>리오란초 Rio Rancho</p>	<p>식당 Restaurant</p>	<p>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p>	<p>치과 Dentist</p>
<p>공인회계사 ACC</p>	<p>리커스토어 Liquors</p>	<p>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박성희/신숙희</p>	<p>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p>	<p>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 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p>
<p>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p>	<p>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rupe St. Santa Fe (505-470-1561)Hee Joo</p>	<p>클로비스 Clovis</p>	<p>화밍톤 Farmington</p>
<p>카페/ 선물 Cafe/Gift</p>	<p>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p>	<p>Lotus Dumpling House 1807 2nd St. #35 Santa Fe (505-303-3740) 최리엔</p>	<p>식당 Restaurant</p>	<p>상점 Store</p>
<p>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p>	<p>리커스토어 Liquors</p>		<p>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p>병원 Clinic</p>	<p>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p>		<p>광야의 소리</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p>	<p>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p>		<p>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p>		<p>2024년 7/8 월호 발행일 : 2024. 9. 1.</p>	
<p>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p>	<p>치과 Dental Clinic</p>		<p>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p>	
<p>Los Lunas Smiles Dr.윤자정219 Co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p>			<p>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p>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韓 HANMI 韓美
KOREAN-CHINESE FUSION
Business Hours
 Wed - Mon 11am ~ 3pm / 4:30pm ~ 9pm
 Tuesday Closed
 2120 Juan Tabo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Tel: (505) 717-1287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얼버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505)352-5152
 영업시간: M-F 7:00am-6:00pm(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생명보험 : 사랑하는 가정경제를 지키는 버팀목
 롱텀케어 : 양로병원과 간병을 지원하는 플랜
 IRA : 안전과 수익을 함께 보장하는 지수형이자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0K41143 / NM Lic.#17684619
 213.321.8787
carlitos3840@gmail.com

Hye Young Yoon
 Fluent in Korean & English
 Licensed Realtor
윤혜영
부동산 중개인



Hye1231@gmail.com
 917-862-1782
Hye1231@gmail.com



창립 30주년기념
갈릴리교회

특별초청

정철웅 목사
손영진 사모

차 야 의 소 리 전 도 집 회



정철웅 목사님

〈너는 내 사랑〉 저자

손영진 사모님

“사랑의 종소리” “나의 사랑”
“너 어디가든지” “정결” 등

2024년 9월13일(금) 오후 7시30분

2024년 9월14일(토) 오전 7시

2024년 9월14일(토) 오후 7시30분

2024년 9월15일(일) 오후 1시



갈릴리장로교회 본당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